

<특 집 : 독서진흥 환경개선 및 진흥정책 모색>

시민이 있는 곳에 책과 도서관이 있는 도시 순천



■ 양 동 의 순천시 평생학습지원과장, yang7131@hanmail.net

1. 들어가는 말

순천시는 1995년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된 인구 27만의 도·농 복합도시로서 통합 10년이 지나도 도시와 농촌 간 문화, 경제, 교육, 시민의식 등 여러 분야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생활문화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필요성과 2003년 11월 기적의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적의 도서관 전국1호관 도시로서의 우리나라의 새로운 독서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소명의식에 따라 다양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2. 추진 중인 주요시책

1) 동네형 『작은 도서관』 설치

기적의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늘어나고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요구가 많으나 도서관 건립은 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서 주민 가까이 있는 기존 공공시설 중 활용 가능한 소규모의 공간에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을 2004년에는 12개관, 2005년에는 7개관, 2006년에는 5개관을 설치했다. 작은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온돌이 깔린 내 집

안방과 같은 공간과 지역특색을 살린 초가 도서관, 강이 보이는 북 카페 등 이색적인 맞춤형 도서관으로 꾸며 학습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운영자는 사서자격증, 독서치료사, 동화구연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도서관학교 수료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시 지원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문화센터로 육성했다.

시립도서관 3개관과 작은 도서관 24개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립도서관 3개관의 장서를 공유토록 하여 작은 도서관의 장서 부족문제 해결하고 이동도서관 차량 운행으로 신간도서, 베스트셀러 등 이용자 희망도서를 정기적으로 공급하기도 했다.

작은도서관에서 시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영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교육 프로그램, 소리박자 교실을, 유아 및 유치부를 대상으로 그림 책 이야기, 책 읽어 주기, 좋은 친구들, 종이 접기, 레고닥타 등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화를 읽어요, 세계를 알자(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즐거운 책 읽기, 즐거운 미술 활동, 작가에게 듣는 그림동화 이야기 등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독서캠프, 글 어떻게 쓸까, 책으로 떠나는 역사 여행,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성인을 대상으로 시민 문예교실,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관련 프로그램을, 노인을 대상으로 한글작문교실 등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도예체험, 천연염색, 짚물공예, 한지공예, 나무공예, 판소리 등을 운영한다.

2) 『Book Start』 사업

순천에서 자라는 생후 6개월~1년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 보건소, 시립도서관(3개관), 지정된 5개 소아과 병·의원에서 자원 활동가를 통해 북스타트 안내, 육아상담, 책 읽어주기와 함께 북스타트 꾸러미를 전달하고 각종 교육과 시립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육아방 설치를 통하여 사업추진 분위기 조성했다.

2004년 7월 1일 북스타트 순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05년 10월 14일에 북스타트 사업을 발족했다. 2006년 2월에는 북스타트를 확대 운영해 현재 38.9%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북스타트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열린 강좌가 있다. 매주 화요일 북 - 스타트 데이로 정하여 부모와 아기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지막 주 화요일은 부모교육을 통해 올바른 육아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 어릴 때부터 책읽기 경험, 소리의 민감성과 집중력 강화를 위한 육아교육 등 실시한다. 소리 박자 교실은 손 유희와 율동 그리고 음악을 통해 부모님과 하나되고 사회성과 다양한 움직임들을 배우는 시간으로 도서관을 매개로 아이

의 발달 과정을 파악하고 바르게 성장토록 한다.

3)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사업

한 도시 한 책(One City, One Book)사업을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One Book, One Suncheon)』 사업이라 명하고 매년 책 한 권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전 시민이 1년 동안 한 권의 책을 같이 읽고 토론 등을 통하여 일체감을 조성한다. 2003년 10월 17일 책 선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이래로 선정도서를 발표하고 보급하였다. 2004년에는 『등대』(임철우 작, 문학과 지성사), 2005년에는 『스무살 어머니』(정채봉 작, 쌤터사), 2006년에는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안미란 작, 창작과비평사)을 선정하였다.

4) 도서관 학교 운영

도서관 운영자, 도서관 도우미,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문화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도서관 관계자의 마인드 향상과 올바른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독서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 2004년 1월에 1기가 시작된 이래로 현재 4기까지 진행되었다.

5) 한글 비문해자에 대한 「한글작문교실」 운영

일제 강점기와 해방이후 사회적 격동기를 거치며 배움의 기회를 잃고 일터로 내몰렸던 비문해 고령자에게 한글교육을 실시하여 문맹을 깨우쳐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새로운 독서인구 양성을 위해 마을단위로 적게는 8명에서부터 많게는 30명까지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문맹퇴치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3. 우리나라 도서관 행정 혁신 표본 도시로 변모

1) 인구 1만 명당 1도서관 실현

인구 27만의 도시에 시립도서관 3개소(중앙관·연향관, 기적의도서관)와 작은 도서관 24개소가 있어 인구 1만 명당 1도서관을 운영한다. 도서관을 정보획득의 장소, 만남의 장소, 공부방, 토론방 등으로 활용케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서관을 학습문화센터로 인식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2) 독서 인구 저변의 대대적 확대

6개월 된 유아의 북스타트에서부터 팔순 할머니의 한글 배우기까지 시민 모두가 책과 함께 하는 도시로 변모시키고, 시민이 이용하기 쉽게 시민 가까이에 있는 「동네형 작은 도서관」 개설로 도서관 이용 인구를 대대적으로 증가시킨다.

3) 2010년까지 문맹율 0% 달성 가시화

순천시 비문해자는 15,261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13.7%인 2,097명이 「한글작문교실」에서 한글을 깨우쳤다. 앞으로 매년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글작문교실」을 운영하면 2010년에는 문맹 완전 해소가 가능하다.

4. 제안 : 노인대상 도서 발간에 관심

노령화 사회도래와 문맹해소에 따른 노인 독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에도 노인독서에 대해 도서관관계자, 출판업계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요리, 취미 생활, 질병, 여행 등 노인들의 관심분야, 시력 등 노인들의 신체조건에 맞는 맞춤형 도서 발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새로운 독서층을 확보하는 방안이며 노년의 여가를 생산적으로 즐기도록 하는 배려요 문화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충족 시켜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20)